

수출입은행

해외 금융계약 체결도 온라인 방식으로 동남아프리카 무역개발은행과 1억달러 화상 계약 체결



방문규 은행장(왼쪽)과 아드마수 타데시(Admassu Tadesse) 동남아프리카 무역개발은행장(사진 속 모니터)이 7월 14일 한-아프리카 교역 투자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1억달러 규모의 전대금융 한도 계약을 온라인 화상 서명식을 통해 체결했다.

한국수출입은행(은행장 방문규)은 7월 14일 동남아프리카 무역개발은행(TDB)과 한-아프리카 교역·투자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1억 달러의 전대금융 한도 계약을 온라인 화상 서명식으로 체결했다.

TDB(The Eastern and Southern African Trade and Development Bank)는 1985년 동남아프리카의 역내·외 무역 증진을 위해 설립된 다자개발은행으로 케냐, 탄자니아 등 아프리카 22개국이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무역금융, 프로젝트금융 등을 제공한다.

전대금융은 수은이 외국은행과 신용공여 한도계약(Credit Line)을 체결하고 자금을 빌려주면, 현지 은행이 한국 물품을 수입하는 현지 기업에 대출해주는 금융상품을 말한다.

방문규 은행장은 “아프리카는 13억명의 인구와 풍부한 천연자원, 젊은 소비층을 보유해 성장잠재력이 높고 전략적 중요성이 큰 시장”이라며 “자동차, 가전 등 주요 소비재 수출 및 농업·운송·인프라·보건의료 분야에서 협력수요 증가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방행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응한 화상 서명식과 웨비나(Webinar) 등 비대면 업무 프로세스를 정착 시켜 정책 금융 지원 확대를 모색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한국의 대(對)아프리카 수출액은 63억달러, 해외투자금액은 5억달러로 세계 다른 시장에 비해 거래 비중은 낮은 편이다. 다만, 최근 운송·인프라 분야에 대한 상담이 꾸준히 늘고 있고, 특히 아프리카대륙 자유무역지대(AfCFTA)가 본격 시행되면, 우리 기업의 대아프리카 교역과 투자가 향후 전반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은은 TDB, Afreximbank 등 아프리카 5개 은행에 설정된 총 7억달러의 전대금융 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우리 기업의 아프리카 진출 수요를 충족시킬 방침이다. 또 아프리카 현지 기업들이 전대금융을 활용해 한국제품 수입이나 거래를 확대할 수 있도록 7월 30일 ‘한-아프리카 전대금융 웨비나’도 진행했다.

주케냐 한국대사관 주최로 수은, 코트라 나이로비 무역관 및 TDB가 공동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아프리카에 진출한 우리 기업과 현지 수입자 등 60여 개사가 참가한 가운데 온라인 영상회의의 형식으로 1시간 동안 진행됐다. ▼